

민심보다 윤심, 명심이 더 중요한가

시각과 전망



모현철
신문국
부국장

새해 들어 수많은 가정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면서 아우성이다. 곧 날아들고 지시서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통상 12월보다는 1월에 더 추운 날이 많아 난방 수요가 높고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진다. 전기료마저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네 탓 공방만 벌여 국민을 화나게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는데도 전임 정부가 공개한 바램에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인상 부담을 떠안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대란이 예고됐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현 정부 탓이라고 반박한다.

해가 바뀐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야는 여전히 대치 상태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만 벌인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영향도 있다. 국회의원들

은 공천권을 쥐 '주군'의 눈에 들기 위해 줄서기에 일찌감치 나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흥당 싸움을 벌인 국민의힘은 조금은 정리됐지만, 후유증은 크다. 당권 경쟁으로 내용이 깊어졌다. 국민의힘의 목표는 내년 총선 승리다. 국회 권력이 없는 집단의 정권 교체로는 성공한 정부와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다. 당 대표 경선에서 재임 대통령의 의중이 논란이 됐지만 이번처럼 노골적인 경우는 드물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을 한숨 짓게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 대표를 병풍처럼 둘러싼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을 보면 민주당이 변화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지키기' 아니면 침묵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뚫고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고 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매일신문이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평가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를 한 결과,

대구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구 시민은 10명 중 4명에 그쳤다. 경북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평균 50%대에 턱걸이 수준이었다. 내년 총선에서 큰 폭의 물갈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존재감이 미미한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들에게 "재선 이상 TK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모두 물갈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은 책바퀴만 돌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화두를 던진 윤석열 대통령은 후속 조치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다. 난방비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크지만 정당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개혁에 소극적이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는 우스갯말도 있다. 국회의원들의 지상 과제는 다음 총선 공천이다. 공천권을 가진 권력자의 의중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특정 권력자를 집단적으로 추종하는 정당은 권력자의 부침에 따라 국민의 외면을 받고 정당 존립도 위협받을 수 있다. 민생이 아니라 공천권을 가진 주군의 의중에만 목매는 생계형 정치인들을 또 다시 뽑는 일은 비극이다. 민심을 외면하고 윤심, 명심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물갈이하는 게 정답이다.

사설 社說

김성태 800만 달러 대북 송금,李는 과연 몰랐을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때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북측에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송금했고, 이 중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며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전모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김 전 회장이에게서 받아냈다고 한다. 사실이면 남북교류협력법, 외국환관리법, 국가보안법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과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까지 위반한 것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2019년 1월 200만 달러(약 25억 원), 4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를 보냈고 같은 해 11~12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을 만나 "이 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한다"며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리호남은 500만 달러(62억 원)를 요구했으나 300만 달러로 조정됐다는 것이다.

김철은 김 전 회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뒤집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열린 '한국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동석한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지난 19일 "누군가가 술을 먹다가 (김 전 회장과)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대북 사업을 고리로 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의 '거래' 의혹이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검찰에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부인한다. 이런 '닥치고' 부인이 거짓말로 드러날 가능성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대북 송금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유아교육·보육 통합, 미래 세대 위해 반드시 관철돼야

정부는 지난달 30일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단계적으로 없애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게 뼈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만 0~5세 대상 영·유아 교육·돌봄기관은 2025년 출범한다. 두 기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교사 자격과 시설 기준 등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한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으려면 두 기관을 통합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보통합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부에서 두 기관을 합치자는 합의가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이 급물살을 탔다.

유보통합에는 난제가 많다. 교사 자격 기준 및 양성체제의 통합은 '뜨거운 감자'이다. 유치원은 학교의 일종이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다. 두 기관의 교사 양성체제와 자격, 처우, 입직경로(入職經路) 등이 다르다. 일부 유치원 교사들은 유보통합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추가 재원 확보도 어려운 과제이다. 정부는 현재 따로 집행되는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 15조 원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 등을 합쳐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기로 했다. 추가 재원 규모는 2026년부터 매년 2조2천억~2조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다. 국민적인 공감도 얻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시행되지 못했다. 교육계에선 '유보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다. 통합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율이 정책 성공의 열쇠이다. 국가는 양질의 교육·보육 환경을 만들 어줄 의무가 있다. 유보통합은 그런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다. 정부는 국민 여론 수렴 및 홍보, 갈등 조정,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선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정기 후원으로 이어 가려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기부가 끊긴 날이 없다. 성의 넘치는 답례품도 입소문을 탄다. 경북도와 각 기초자치단체는 지난달 29일까지 3천500여 명의 기부자가 7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시행 한 달 만에 목도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주소다.

아직 충분한 액수라 보기 어렵지만 시작이 반이다. 무엇보다 기부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인 현상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모태인 일본의 고향납세제 역시 도입 첫해 금액은 865억 원에 불과했다. 이후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각 현의 지원과 홍보 덕분에 2020년에는 7조 원이 넘는 액수에 이르렀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우리로서도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원과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활성화까지 가는 길이 험난할 이유가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가 안 된다. 고

향사랑기부제의 발전 가능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장에서 "아직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이 상당수인 반면, 지자체가 홍보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적이다.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를 늘리는 한편 기부 독려를 허용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는 까닭이다.

다만 지금과 같은 기세도 언젠가 변곡점에 맞닥뜨릴 것이다. 정기 후원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지점이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에는 홍보 방식 자율화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기부 방법과 절차도 간편하게 바꿔야 한다. 디지털 사용에 익숙한 일대에서 불편 사항으로 제기되는 것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발성으로 끝내고 말 퍼포먼스가 아니다.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스비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대란'과 관련,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언급 안 했지만 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가 인상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순리다. 2021년 6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연초 대비 44% 상승했고 10월 초에는 연초의 2.5배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3·4월부터 요금 인상을 8차례 요청했지만 문 정부는 계속 묵살했다. 대선에서 패배해 정권 교체가 결정되던 2022년 4월에 요금 소폭 인상을 승인했을 뿐이다.

문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대선 패배를 우려해 요금 인상을 주저했을 것이다.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2020년 말 2천억 원이던 가스공사 영업손실은 2021년 말 1조8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이플레이션'(E-inflation·에너지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과 한파가 겹쳐 난방비 대란이 벌어지게 됐다. 경제 논리에 입각해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을 국내 에너지 요금에 일정 부분 반영, 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게 정상적 국정 운영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지지율과 대선을 의식해서 요금 인상이라는 인기 없

는 정책을 파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올인했다.

문 정부 포퓰리즘에서 전기요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 정부 5년 동안 한국전력은 10차례 요금 인상을 요청해 한 차례만 승인받았다. 결국 한전은 지난해 30조 원이라는 적자를 냈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이 고통을 겪게 됐다. 문 정부는 국민 연금 개혁도 외면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고, 연금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기에 할 일을 해 후환을 막으라는 말이다.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을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 마련이다. 문 정부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들었다. 문 정부가 작성한 포퓰리즘 청구서들로 국민 고통이 커지는 형국이다.

이대현 논설실장 sky@maeil.com

文 정부 포퓰리즘 청구서

문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대선 패배를 우려해 요금 인상을 주저했을 것이다.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2020년 말 2천억 원이던 가스공사 영업손실은 2021년 말 1조8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이플레이션'(E-inflation·에너지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과 한파가 겹쳐 난방비 대란이 벌어지게 됐다. 경제 논리에 입각해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을 국내 에너지 요금에 일정 부분 반영, 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게 정상적 국정 운영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지지율과 대선을 의식해서 요금 인상이라는 인기 없

백년가게 선정 맛집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오래도록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은 점포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공식 인증받은 점포입니다.

백년가게 동해회집 동해회집

김월랑김치·식해 오픈

김월랑 천연김치·식해는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울진 전통 생선김치를 현대 입맛에 맞게 개량하여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전달합니다. 맛좋은 가지미 식해, 횡대기 식해, 천연 생선김치로 추억의 맛을 선물하세요

김월랑 대표 : 2020년 EBS한국직업 김장대전 출연 / 2021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추천식품(유튜브 애로타파 방영) / 2022년 KBS 6시 내고향 방영

수성구 신매로16길 16-2 (신매동) 010-4451-4060

대구수산

민물장어양식수업 51번 중매인

대구 민물장어 유통명가

YouTube
대구장어 캡틴TV 백년가게 '대구수산'과 함께하는 민물장어 이야기

대구수산은 30년 이상 노하우로 만든 특제건강소스(고추장, 간장)와 채식양 서비스, 깔끔하고 위생적인 초벌구이 진공포장, 업계최초 24시간 무인자판기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사랑받아 온 2021년 선정 백년가게입니다.

가정이나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정품 국내산 '최고급 민물장어 밀키트'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세요.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69
053-425-7611

김태희옛날손국수

소화가 잘 되는 건강한 칼국수

예약 및 문의 : 053-616-0765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옥포로 597

NAVER 김태희옛날손국수 검색

다양한 상품을 쉽고 편하게 인터넷으로 주문가능 합니다